<쌍꼽살 4,5회 참고용 자료>

# <경제 흐름에서 투자기회 찾는 법 예시>

2015년 9월 25일

이 자료는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소중한 지적 자산으로 무단 복사와 배포를 금합니다.

# 이 자료를 읽기 전에 당부하는 말씀

▷지금까지 우리 연구소는 국내외 경제의 흐름을 정리해 소개하는 역할과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및 제언에 치중했지, 일반인들에게 투자 기회나 그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데는 인색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사회경제적 여건은 계속 악화하고 저금리 저성장이 이어지는 시대에 많은 이들이 임금소득 외에 추가적인 소득을 올려 노후에 대비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우리 연구소도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일반인들이 섣불리 투자에 나서기에는 경제상황이 계속 불안했다. 자칫 무리한 투자에 나서면 돈을 벌기보다는 잃기 쉬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최근의 상황만 보더라도 '차이나 쇼크'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만으로도 국내외 금융시장이 계속 요동치고 환율이 오르내리는 상황이 지속됐다. 경우에 따라선 향후 미국 금리 인상이 단행되고 중국경제의 경착륙 여부 등에 따라 상당한 충격파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요동치는 경제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에 따른 리스크를 적절히 분산할 수 없으면 투자에서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2년 전쯤 많은 언론들이 소개했던 브라질 국채 투자도 그렇고, 한 때 급등했으나 급락한 중국 주식 투자도 그렇다. 2014년 하반기 이후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사는 경우도 향후 상황변화에 따라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낮지 않다. 사실 지금도 일반인들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기에 썩 좋은시기로 보기는어렵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사전에 충분히 공부하고 준비한 경우라면 여전히 변동하는 경제 흐름 속에서 투자 기회를 찾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그런 준비를 충분히 하고 투자에 나서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다만 그럼에도 계속 투자에 나서는 분들이 많지 않아 그런 위태로운 상태를 지켜보기보다는 그런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와주려는 의도로 이 자료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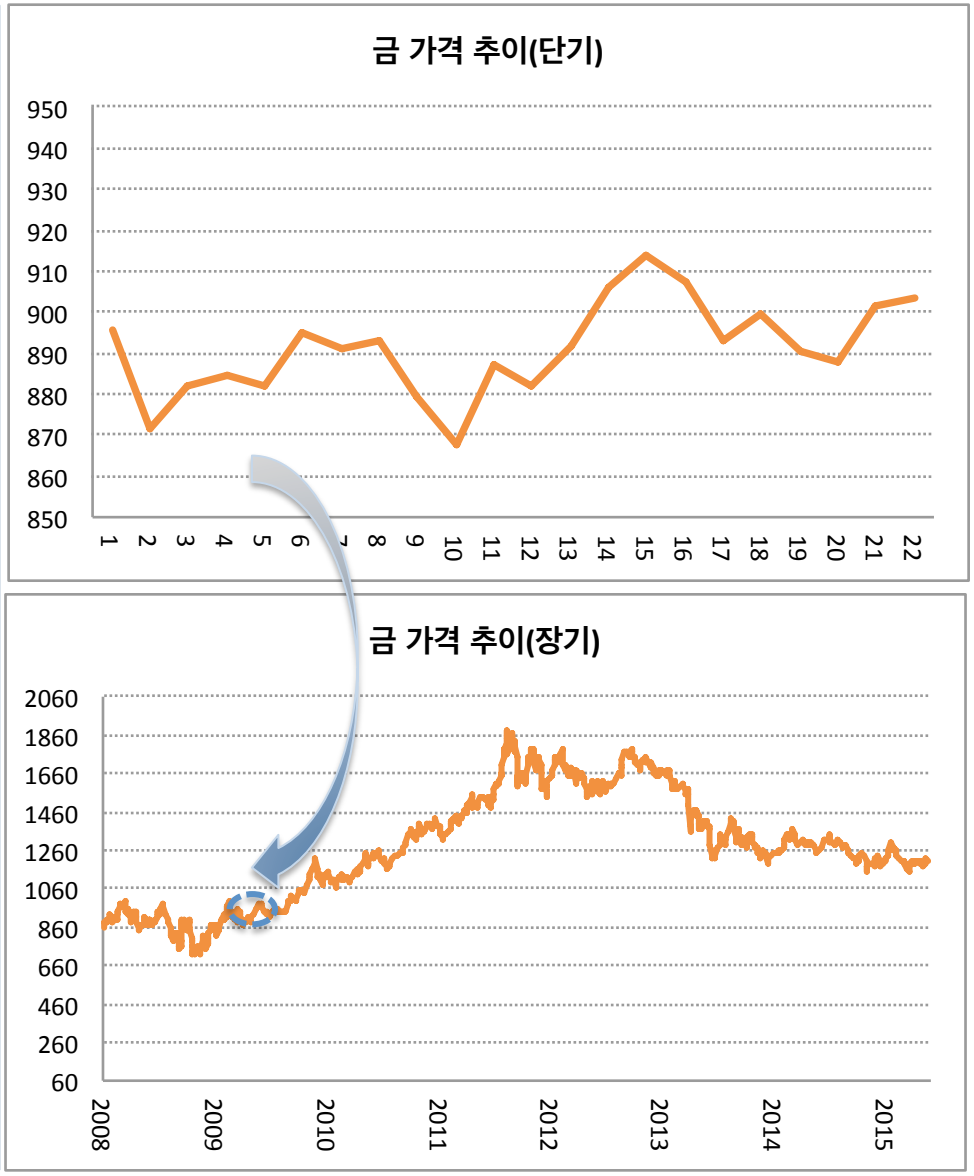
전투든 시합이든 참여해서 이기고 싶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지피지기(知彼知己)다. 어떤 전투나 시합과 마찬가지로 투자에서도 지피지기가 필요하다.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자신이 투자할 대상을 알아야 적절한 수준의 투자를 할 수 있고, 투자 승률과 수익률도 높일 수 있다. 우선 투자에서 자신을 안다는 것, 즉 지기는 자신의 인생계획과 목표, 재무상황, 투자성향을 파악하는 것 등을 말한다. 자신에게 필요한 자금수요와 가용 자금, 그리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야 함을 말한다. 또한 투자에서 남을 아는 것, 즉 지피는 경제의 흐름을 읽고 기회를 포착할 줄 알며 그와 관련된 투자대상의 특성(예를 들어, 주식의 재무분석)을 이해해 투자의 기회를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수단(투자상품의 특성과 운영 구조)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지피지기가 어느 정도 갖춰져도 크고작은 시행착오들을 거쳐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지피지기의 정도를 심화할 수 있을 때 투자의 평균 승률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짧은 자료에 투자의 지피지기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다룰 수는 없다. 다만 쌍꼽살 방송에서 설명한 대로, 경제의 큰흐름에서 어떻게 투자기회들을 찾아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부 사례를 보여주는 것에 국한하려 한다. 경제의 큰흐름을 읽는 능력은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 매우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다. 세계적인 투자거물인 짐 로저스가 "내가 그동안 투자에서 거둔 성공은 모두 주요 변화와 추세 전개에 주의를 집중한 덕분이었다"고 말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특히 경제의 큰흐름을 몰라도 이른바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었던 고성장기와 달리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는 경제 흐름을 모르고서 투자 기회를 포착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를 모르면 오히려 손해볼 일이 더 많다고까지 할 수 있다. 아무쪼록 이 자료가 일반인들이 투자에 나서기 전 준비를 갖추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되기를 바란다. 혹시 투자 전반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은 분들은 10월중 발간되는 필자의 신간<빅픽처>를 참고하거나 <빅픽처와 투자포지셔닝 정하기> 강좌(11월 14~15일)를 수강해보기 바란다.

# 금 가격 사례로 본 경제 흐름 읽기와 투자

▷ 이제 경제의 큰흐름을 읽는 것이 투자에서 왜 중요한지 살펴보기로 함. 2009년 한 때 22 거래일 동안의 금 가격을 나타낸 오른쪽 위의 그래프를 보면 이 기간 중에 금을 언제 사서 팔 수 있는지 정확히 포착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 것임. 물론 이미 그래프에 나타난 결과를 사후에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보자면 당연히 10일째에 사서 15일째에 판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임. 하지만, 매일매일 금 가격이 오르내리는 시장 상황에서 언제가 단기적인 저점과 고점이 될지를 정확히 판단하기란 매우 어려움. 그런데 많은 이들은 이런 단기적 상황에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할 때 하루 또는 며칠에 걸쳐서 단기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음. 이런 경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회를 거듭할수록 돈을 벌기보다는 잃게 마련임.

그런데 이번에는 2008년 이후의 장기적인 금 가격 흐름을 나타낸 아래쪽 그래프를 살펴보면 금 가격이 2008년 하반기 이후 2011년 상반기까지 약 2년 반 이상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음. 또 이후에는 일정한 등락을 보이면서도 대체로 가격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음. 만약 이 같은 금 가격의 큰 흐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면, 투자는 훨씬 쉬우면서도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임. 예를 들어, 금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를 확인한 뒤 2010년 1트로이온스당 약 1060달러대에 사서 2011년 하반기에 정점을 찍고 하락세를 확인한 2012년에 1660달러대에만 판다고 해도 수익률이 약 56.6%에 이름. 금 가격의 하락기에도 금 선물을 매도하거나 인버스 금ETF같은 상품에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임. 이처럼 투자대상인 상품의 가격 추이는 단기적으로는 들쭉날쭉한 것처럼 보이지만, 길게 보면 상당기간 추세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경제흐름에 대한 안목을 가지면 일정한 수준에서 가격 향방과 추세의 지속 수준을 가늠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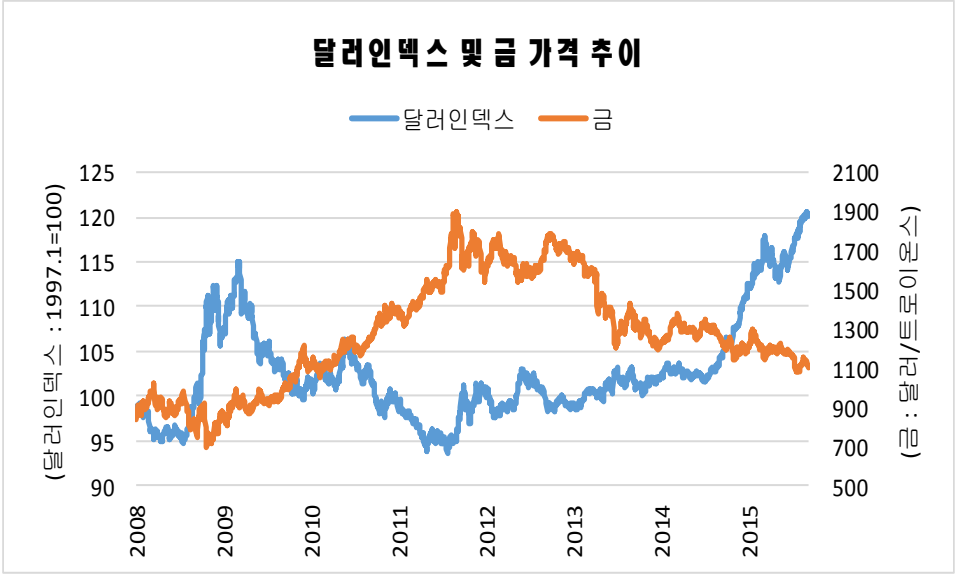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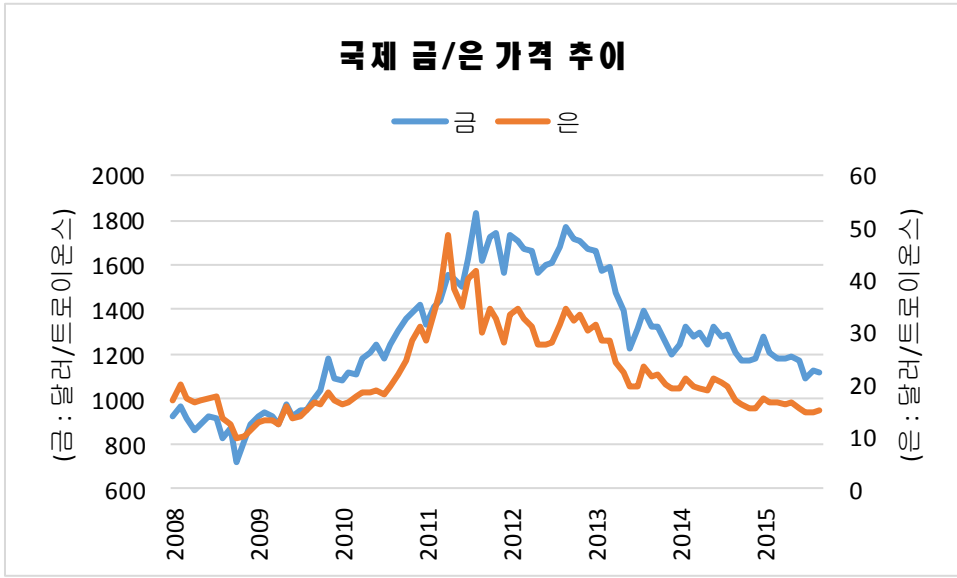

주) 세계은행 및 세계금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 달러가치와 금 가격의 상관관계

▷ 그러면 금 가격의 추세는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 금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사실 기축통화인 달러의 흐름과 밀접히 연관돼 있음. 실제로 오른쪽 위의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 2008년 이후 달러인덱스와 국제 금가격 추이를 비교해보면 대체로 국제 금가격과 달러인덱스가 대체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실제로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가 약해질 때 금 가격이 안전자산으로서 가치가 부각돼 상승세를 보이고,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이면 금 가격은 대체로 약세를 보이기 마련임. 뒤에서 보겠지만, 달러의 가치는 미국의 양적완화 시행과 종료, 그리고 예정된 금리 인상 등에 따라 역시 일정한 수준에서 어느 정도는 큰 흐름을 형성하게 됨. 즉 달러가치가 어떻게 변할지를 어느 정도 이해한다면 금 가격의 중장기적 추세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가늠할 수 있음. 물론 가격 흐름을 100% 정확히 알 수는 없으며 적절한 투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도 굳이 100% 정확히 알 필요도 없음. 긴 호흡으로 투자할 경우 최소 1~2년이 넘는 추세 속에서 금 가격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을 안다면 단기간의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큰흐름 속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임. 또한 여기에서는 금 투자 하나만을 예로 들고 있지만, 다양한 상품(commodity)이나 주식 등에 균등한 금액으로 투자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예측성공률이 절반만 넘어도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임.

물론 금 가격의 흐름에 관해서는 달러 가치 외에도 금 공급과 수요도 상당한 영향을 미침.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 금의 최대 수요국인 중국과 인도의 금 수요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감했으며, 이것이 최근 금 가격의 하락에 추가적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처럼 달러 가치의 흐름과 주요한 수급의 변화만 어느 정도 이해해도 국제 금 가격 추이를 큰 흐름에서 예측하는 것은 훨씬 더 쉬워지게 됨. 이렇게 큰 흐름에서 국제 금 가격을 예측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 가격의 향방에 투자할 경우 성공 가능성은 앞의 단기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우보다 훨씬 높아짐. 참고로 금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는 은의 가격 또한 금 가격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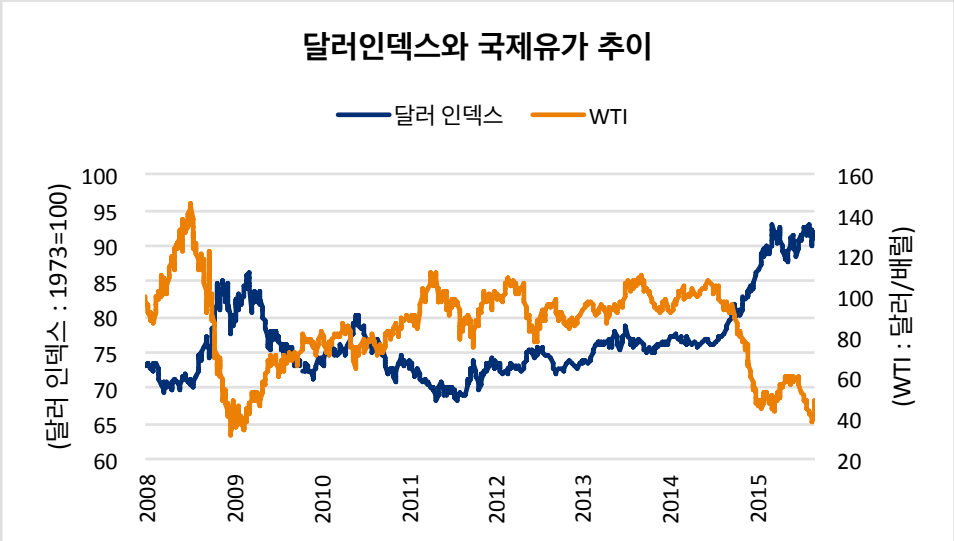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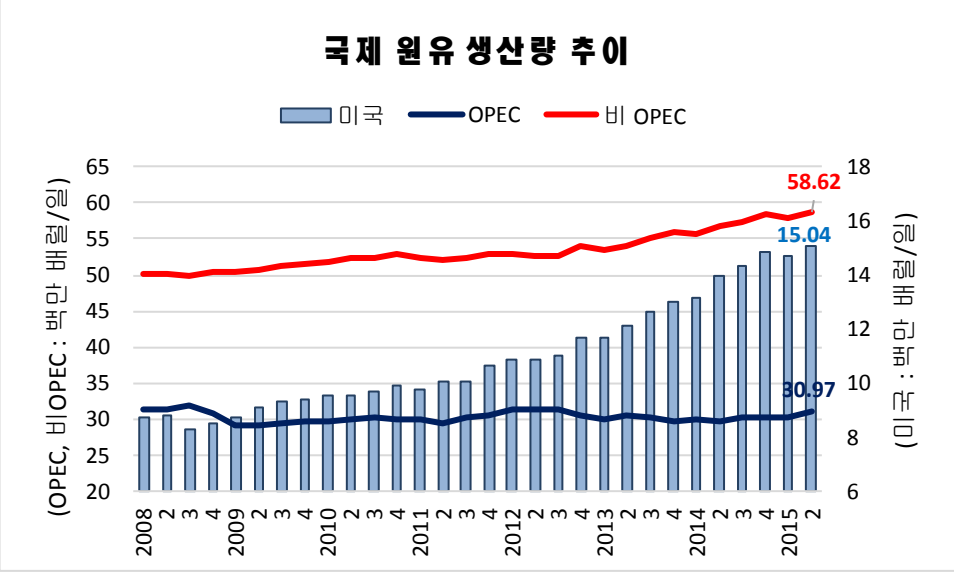

주) FRB, 세계은행, 세계금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 국제 유가 사례로 본 경제와 투자의 연관고리 찾기

▷ 국제 유가 흐름도 마찬가지로 살펴볼 수 있음. 오른쪽 위의 그래프에서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가 상승함. 즉 달러가 강세를 띠게 됐음.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미국이었지만, 미국 이외의 경제도 큰 타격을 받으면서 오히려 기축통화국인 미국으로 일시적으로 자금이 유입된 때문이었음. 그런데 미국이 본격적으로 양적완화를 시행하면서 2009년 상반기 이후 달러가 약세를 나타내기 시작해 2011년 하반기 정도까지 달러 약세가 계속 진행됐음. 양적완화로 달러가 흔해지니 달러가 약세를 나타낸 것임. 그런데 2011년 중반에 남유럽발 부채 위기가 터지면서 미국보다 상황이 더 어려운 나라들이 생겨나면서 상대적으로 달러가치는 올라가기 시작했음. 그리고 미국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다가 특히 2013년 중반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의 양적완화 종료 시사발언이 나온 뒤부터 달러가치 상승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음. 이어 2014년 10월 양적완화가 종료되면서 달러가치는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음.

그런데 이 같은 달러 흐름과 연동해서 WTI(West Texas Index,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 가격이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음. 마치 거울 이미지처럼 보일 정도로 매우 밀접하게 연동하고 있는 것임.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임. 이처럼 유가가 달러 가치에 연동돼 움직이는 이유는 원유가 기본적으로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임.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올라가듯이 양적완화로 달러가 많이 풀리면 달러로 거래되는 유가는 올라가게 되는 것임. 반대로 달러가 강세가 되면 달러로 표시되는 유가는 떨어지는 흐름을 보임. 물론 유가도 달러가치뿐만 아니라 원유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됨. 아래 그래프에서 셰일오일의 생산으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크게 늘어난 것도 유가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음. 또한 원유 수입 대국인 중국의 경기 침체와 OPEC의 감산 거부 등도 영향을 미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가치의 흐름만 이해해도 국제 유가를 큰흐름에서 어느 정도 예측하고, 유가 또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릴 수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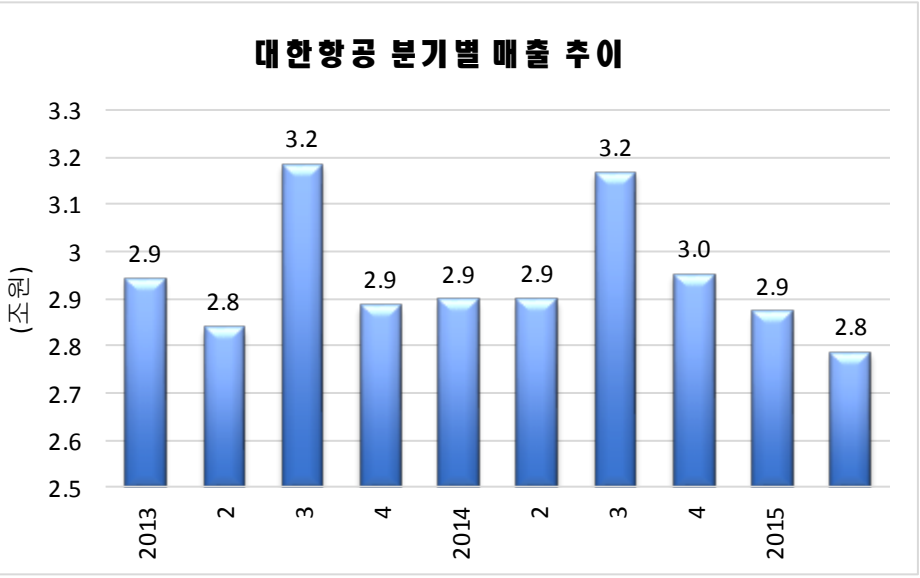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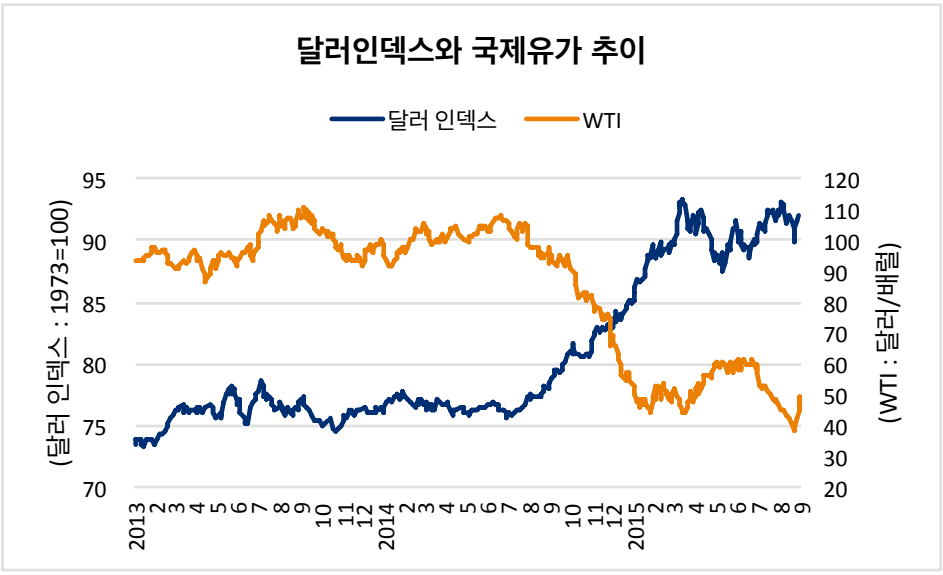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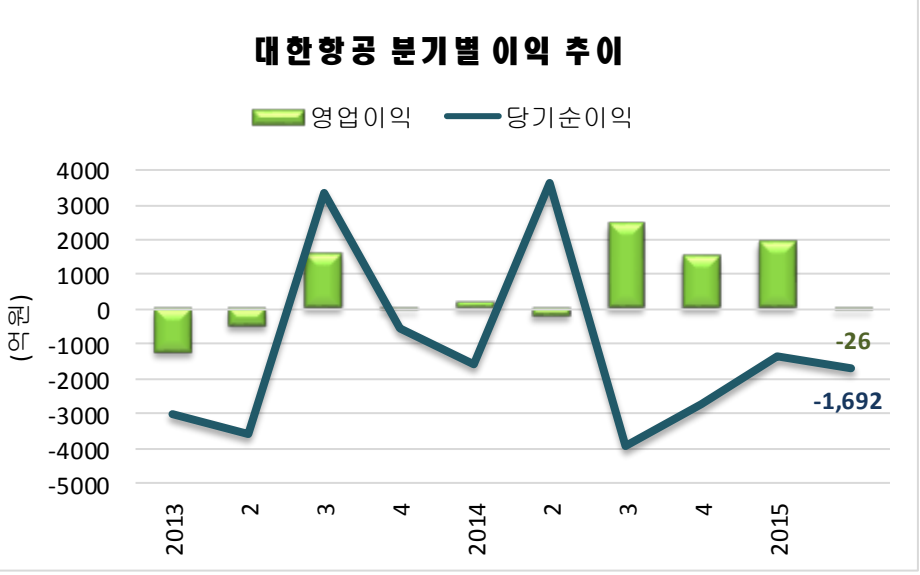

주) FRB와 미 에너지정보청(EIA)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 유가와 개별 기업의 실적 및 주가: 대한항공

▷사실 경제의 큰흐름이 상품이나 투자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음. 예를 들어, 항공유가 매출원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항공사의 실적이 유가 등락에 좌우되고, 주가도 큰 영향을 받게 됨. 대한항공의 분기별 매출추이를 보면 여름휴가철이 끼어있는 3분기를 제외하면 매출액이 거의 일정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그런데 양적완화 시사 발언 이후 달러가치가 올라가면서 국제 유가가 급락한 2013년 3분기 갑자기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후 일시적으로 유가가 다시 소폭 올랐던 2014년 2분기까지 영업이익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다가 달러 가치 상승과 유가 하락이 급격히 일어난 2014년 3분기부터 다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매출은 똑같은데 국제 유가 하락으로 비용이 대폭 절감되면서 영업이익 확대로 이어진 것임. 참고로 한진그룹의 부채 비율은 매우 심각해 그룹내 부채 문제를 털기 위해 당기순이익의 진폭이 크지만 이런 경우 주가에 주로 반영되는 것은 영업이익이라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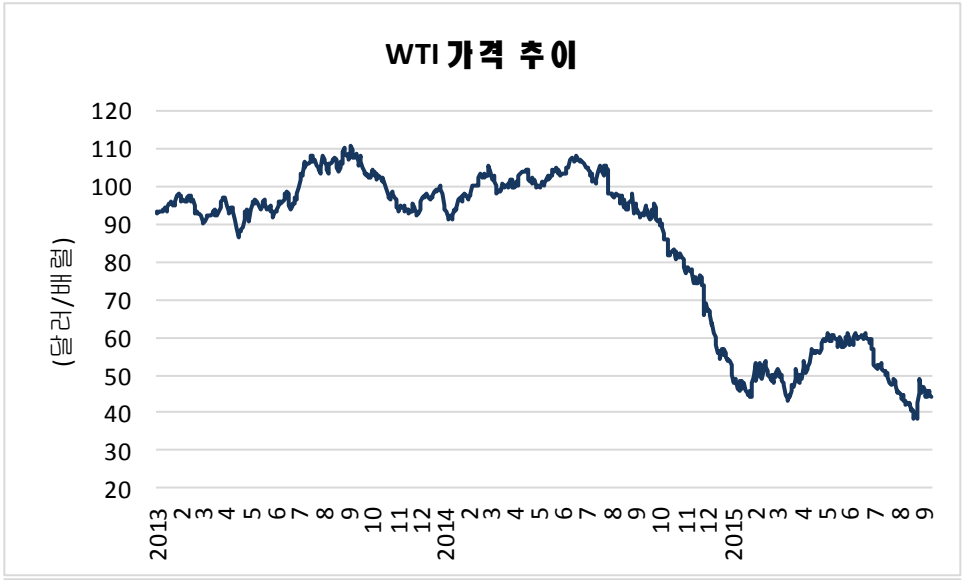




주) FRB, EIA, 대한항공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 경제흐름을 활용한 탑다운 방식의 주식 투자

▷ 앞서 설명한 달러가치→원유가→대한항공 실적이 최종적으로 대한항공 주가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리해보자.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순매도세를 보이며 이탈하기 시작한 5월 이전의 흐름을 보면 대한항공 주가가 유가 추이와 거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즉 유가 움직임과 강한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대한항공 주가가 움직인 것임. 이를 보면 국제 유가의 큰 흐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면 대한항공의 주가 흐름도 큰흐름에서는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정도임. 즉, 유가 흐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면, 유가 또는 유가를 기초로 만들어진 금융상품 등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이처럼 유가 흐름에 긴밀히 영향받는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음. 대한항공의 경우 원유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한 2014년 6월부터 대략 유가의 단기 바닥권인 2015년 4월까지 대한항공 주식에 투자했다면 최고 60%에 이르는 수익률을 올릴 수도 있었을 것임. 물론 현실적으로는 정확하게 단기적인 주가 저점과 고점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이런 흐름을 이해한다면 20~30% 정도의 수익률은 올리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음. 다만, 올해 7월말부터 전개된 '차이나 쇼크' 등으로 주식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는 개별적인 주가 흐름을 압도하는 요인들이 작용하는 경우이므로 다소 예외적인 경우로 생각해야 함.

어쨌거나 이처럼 경제의 큰흐름을 알고, 큰흐름을 구성하는 주요한 변수들에 관심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투자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가장 간편하게는 일반인에게도 익숙한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음. 많은 경우 국내에서 주식투자의 고수라는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 보면 이런저런 인맥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빨리 입수해 주식을 사고파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그 같은 정보에 따라 움직이는 주식의 가격은 변동성이 강함. 더구나 일반인들이 그런 사람들의 정보력을 따라갈 수는 없으며, 따라서 그들의 투자방법을 따라하기도 힘듦. 하지만 이처럼 경제의 큰흐름을 읽게 되면 일반인들도 투자 실패의 가능성을 줄이고 투자의 승률과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음.







주) EIA 및 대한항공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 투자에 나서기 전 명심해야 할 10계명

수익률과 함께 리스크를 생각하라

투자상품별 운영 원리와 수익률-리스크 수준을 이해하지 못하면 투자하지 마라

리스크 헤지를 고려하되 100% 헤지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라

투자기간(또는 만기)을 정하라: 장기투자와 단기투자를 구분해 활용하라

경제 흐름을 스스로 읽고 투자 포지션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

반드시 여윳돈으로 투자하라

손실목표를 정하고, 장기적으로 투자승률을 높이는 투자를 하라. '한 방'을 노리지 마라

소액으로 투자해 방법론을 터득한 다음 투자금액을 늘려가라

반드시 분산투자를 해야 한다. 자신감이 생기면 어느 정도 분산도를 낮출 수는 있다.

자신의 직무에 집중할 수 없다면 투자하지 마라

# 일반인들을 위한 정직한 경제솔루션!
# 선대인경제연구소/선대인교육아카데미

*필독!

쌍꼽살과 여기에서 설명한 내용은 일반인들에게 경제의 흐름을 읽고 투자 기회를 포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한 예시로 특정 대상에 대한 투자를 추천한 것으로 이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사 이 자료를 참고해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책임은 최종적으로 투자자 본인이 진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 www.sdinomics.com 070-7584-2050
선대인교육아카데미 www.sdinsight.co.kr 070-7594-2050

SDnomics 선대인경제연구소